

‘나비축제’ 끝났지만 함평엑스포공원은 정상 운영

오늘·내일 시설 철거 출입 통제 9일부터 생태·전시관 관람가능 “다양한 콘텐츠 발굴·제공 주력”

함평군은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종료 후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역농특산물 판매 부스 및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 중앙 무대를 7일과 8일 철거하고, 관람객 안전을 위해 엑스포공원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공원이 정상 운영되는 9일부터 각양각색의 식물로 다양한 테마를 연출한 식물 전시관 및 세계의 나비와 곤충들을 관람할 수 있는 나비곤충생태관, 함평의 70, 80년대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그 시절

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함평추억공작소 등 다채로운 주제의 전시관 관람이 가능하다.

함평추억공작소에 마련된 황금박쥐전시관에서는 순금 162kg, 은 281kg으로 제작된 황금박쥐상도 만나 볼 수 있다.

공원 중앙광장은 꿈나무·희망나무, 이색초화류 포토존 등 다양한 포토스팟이 있어 가족친구와 함께 추억을 남기기에 제격이다.

함평천 습지공원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무더위에 잠시 지친 몸을 쉬 수 있는 대왕참나무 쉼터 등 휴식공간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또한 야간에는 다양한 조명들이 빛을 비추며 색다른 함평엑스포공원의 자태를 뽐낸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축제는 끝났지만 함평엑스포공원은 정상 운영되니 가까운 이들과 함께 우리 군의 풍부한 축제 콘텐츠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가 끝난 뒤 9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이 정상 운영된다.

함평군 제공

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평군은 전국 최고 축제 도시의 자부심으로 전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

을 향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과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무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 달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내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도인 202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방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도움 창구를 통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오는 22일까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669) 또는 무안군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61-450-52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스마트폰활용 자격 취득반 개강 영암군 시니어대학

영암군 시니어대학이 지난 1일 세한대학교에서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자격증 취득반을 개강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급변하는 시대에 어르신들이 첨단기술로 경제활동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에 유용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개설했다.

지난달 8일 개강한 취미반에 이어 이번 자격증 취득 실용반이 더해지며 시니어 대학에는 현재 2개반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19일까지 실용반 참여를 신청한 어르신들은 6주 동안 매주 수요일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취득에 나선다.

영암군 시니어대학은 7월께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풍수인테리어 지도사,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노래교실 지도사, 어린이독서 지도사 중 1개의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할 예정이다.

영암군 시니어대학 수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061-469-1508)에서 한다.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 모터피아’ 홍보관 운영 9-12일, 서울 국제관광전

영암군이 오는 9-12일 서울 코엑스 A홀에서 열리는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영암 모터피아’ 홍보관 부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국제관광인포럼과 ㈜코트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후원의 서울국제관광전은 전 세계 관광업계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에게 정보·체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 관광 전시다. 올해는 40개 국가 400여 기관·업체가 500여 부스를 운영한다.

영암군은 이 행사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영암F1국제경주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암 모터피아 사업을 알린다. 영암 모터피아 홍보관은 자동차 문화와 모터스포츠의 중심지인 영암F1국제경주장에서 열린 다양한 대회와 공연 이벤트의 사진, 영상 등이 집중 소개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너구리 라면 가게’ 인기 완도군-농심, 42년간 상생 발전

완도군과 농심이 너구리 라면에 완도 다시마를 사용하며 42년의 인연을 이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열린 장보고수산물축제에서 ‘너구리 라면 가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6일 완도군에 따르면, 홍보 부스에 신제품 증정, 라면 뽑기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와 포토존이 마련돼 방문객들로 인산인해였다.

농심은 축제 기간 중 푸드 마켓과 음식점 등에 너구리 라면을 지원했으며, 푸드 마켓에서는 너구리 라면과 전복 등을 이용한 특별한 메뉴도 선보였다.

한편 너구리에 들어가는 다시마는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 금일도에서 생산되는 품질 좋은 다시마로, 해마다 농심에서 다시마를 구매하며 어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다.

농심에서는 너구리뿐만 아니라 앵그리 짜파구리 등에도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하고 있으며, 완도군과 농심은 지역사회와 기업의 대표적인 상생 사례로 꼽히고 있다.

완도=정태명 기자

청소년 10명 대상 문화체험 운영 무안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무안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최근 센터 소속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불링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9세-24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상담·교육·직업·자립 지원을 통해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문화 체험활동은 검정고시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에게 각종 문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와 일상의 활력을 북돋아 주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4월에만 총 3회에 걸쳐 영화감상, 톨러스케이트, 불링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센터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해 더욱 즐거웠고 검정고시 대비 수업이 있어 좋았다며 시험에도 꼭 합격해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과 농심이 너구리 라면에 완도 다시마를 사용하며 42년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열린 장보고수산물 축제에서 ‘너구리 라면 가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완도군 제공

“밤에 만나는 공룡세계” 해남공룡대축제 성황

개장 이래 첫 야간개장 호평 인기가수 공연·불꽃쇼 선보여

해남공룡대축제가 처음으로 마련한 야간행사가 대성황을 이뤘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4일 ‘해남! 공룡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해남공룡대축제의 막이 올랐다. 공룡박물관 무료 입장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어린이날 황금연휴 첫날 아침 일찍부터 공룡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잔디광장에서 열린 각종 공연과 체험행사에 참여하며, 공룡열차를 타고 드넓은 공룡 박물관 곳곳을 누볐다.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려 축하공연과 함께 모범어린이와 공룡대축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 어린이들의 꿈과 행복을 응원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을 실시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박물관 개장 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야간 행사는 박물관 수변공원과 야외 공룡



해남공룡대축제의 개장 이래 첫 야간행사가 대성황을 이뤘다. 해남공룡축제 박물관의 야경.

해남군 제공

조형물 주변으로 색색의 조명과 빛이 아름답게 물들어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야간 개장 중에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박물관 옥상에서 쏘아올린 불꽃이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쇼도 펼쳐졌다.

공룡박물관을 찾은 한 관람객은 “낮에만 보던 공룡들의 모습이 밤의 반짝이는 빛들과 어울리니 더욱 신비롭고, 환상적인 광경으로 펼쳐졌다”며 “낮 동안 아이들은 공룡놀이터에서 마음껏 뛰놀고, 밤

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예쁜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5일과 6일에는 우천으로 인해 야외 체험행사와 놀이터, 음악회 등을 모두 취소하고, 야외 주무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공연은 박물관 내부로 옮겨 진행했다. 박물관 야간개장이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박물관 무료 개방과 함께 주요 프로그램들을 차질없이 운영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충족시켰다.

해남=전연수 기자